

# 조선업 불황... 인건비 줄이기... 안전 소홀... '핑'

### 대불산단 원당중공업 폭발사고 원인 재해를 높아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급

최근 조선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으면서 대기업들은 인원 구조조정에 나서고 중소기업들은 부도 직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업체들은 인건비가 줄어들자 적은 수익이라도 '올해 겨자먹기식' 선박 수주에 나서고 정규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나 일용직을 고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31일 오전 발생한 영암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 1공장 LP가스 폭발사고 역시 이러한 조선업의 쇠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사건 재구성=숨진 오모(여·47)씨 등 용접팀 7명과 박모(35)씨 등 취부팀(선체 결합) 4명이 선박 조립작업장에 출근한 것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마친 이들은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8시 무사고 조회를 마친 뒤 선체로 향했다. 선체 내부에 오씨 등 3명, 선체 위에 박씨 등 6명이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2명은 선체 반대편에서 작업 위치를 찾고 있었다.

선체 위에서 강한 가스냄새를 맡은 박씨 등이 현장 관리자에게 이를 알렸지만 "환풍기가 작동되고 있으니 작업에 들어가도 된다"는 말만 되

돌아왔다. 이후 10초 뒤 선박 내부에서 폭발음이 3~4차례 계속됐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두께 2cm의 강철 블럭까지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피와 살점이 곳곳에 뿜 정도로 폭발력은 엄청났다.

◇설립 1년 된 업체에 재해청=조선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인원 구조조정에 나섰다. 정식직원은 구조조정을 하고 대신 그때그때 인력을 구해 일당을 주며 일을 시키고 있다.

일본업체 아나세로부터 160t급 모래 운반선을 수주한 원당중공업은 지난 2001년 설립된 뒤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을 넘어서 중견업체였지만 지난 2006년 69명에 달했던 정식직원은 지난해 29명으로 급감했다.

원당 측은 이에 따라 수주한 선박 제조를 지난 2011년 10월 설립된 민주이엔지에 넘겼다. 이 업체는 자본금 1000만원에 직원 수는 4명인 소기업으로, 일이 있으면 기술인력을 총동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번 사고에 피해를 입은 인부들 역시 모두 10~15만원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었다. 박씨 등 취부팀 4명은 이날이 첫 출근이었다는 점



지난 31일 대불산단 폭발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전남경찰 과학수사팀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서 작업팀 내부의 의사소통도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업, 재해율 평균 2배=이번 폭발사고로 조선업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재해율은 1.0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1.4%(0.70%) 등 조선업 재해율은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산업

재해율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조선업 재해는 추락, 전도, 충돌, 낙하, 협착(끼임) 등 5대 사고 유형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대형 피해는 불력 안에서 복합작업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역시 용접팀과 취부팀이 함께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등에서 기술지원과 안전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역시 안전 불감증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도급이 빈번히 이뤄지는 업계 특성도 잦은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도급업체는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업체는 인력, 시간 등 비용을 아끼려다가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가을, 펜 꼭꼭 눌러 편지 한 통 써보자

김은영의 '그림 생각'



### ⑦ 편지

"사랑하는 것은/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라/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흰히 내다 보이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유치환 '행복' 중에서〉

광주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 하나가 일명 '우대방'이기도 했던 충장로 우체국에 관한 추억의 공유다. 지금도 가끔 우체국 앞을 지나노라면, 청춘의 한 때 사랑의 열병으로 연애편지를 쓰고 보내면서 설레고 기다리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편지의 역사에서, 사상 최초로 우편 소인이 찍힌 편지는 17세기 말 암스테르담에서 등장했다. 문인들과 이름을 날린 사상가들이 활약했던 시대답게 당시 여성들도 소설적인 몽상을 좋아했고 그 모습은 편지를 쓰거나 받는 모습에서 잘 드러났던 것 같다.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베르메르(1632~1675)의 마흔 째이 채 안된 채 남아있는 작품들 중 편지를 쓰거나 읽고 있는 여인을 그린 회화가 6점 있다.

그의 작품 '편지 쓰는 젊은 여인과 하녀'(1671)에서 젊은 여인

베르메르 작 '편지 쓰는 젊은 여인과 하녀'

은 애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곳곳이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그녀는 젊은 여주인이 편지를 다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편지를 전해 받을 사람이 도착하기를 망이라도 보는 듯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해 있다. 마치 편지가 완성되면 손살같이 우체국으로 달려갈 것 처럼. 화면에는 눈에 보이는 분자들의 알갱이처럼 색을 머금은 빛의 입자들이 젊은 여인의 얼굴과 목 주위에서 아롱거린다. 화가의 붓 끝에 녹아 화면 가득 채워진 여인의 설레임은 그림을 보는 이에게 편지를 권한다. 깊어가는 가을, 시공의 장벽 없이 '순간이동'하는 이메일이 아니라 펜 꼭꼭 눌러, 마음을 새긴 편지 한 통 어떨까?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 'e-호조' 사용 의무화·현금담당 출납원 분리

〈재정관리시스템〉

### 전남도 공무원 공금 횡령 재발 방지책

### 담당 공무원 기능직 배제 2년 순환근무

전남도는 최근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지책을 마련한다.

우암학원 창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도는 이번 공금 횡령사건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보증금, 수수료, 예치금 등 이른바 '세입세출의 현금'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지난 31일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세입세출의 현금 입금·출금에 대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입금·출금 내역을 중점 점검하며 연 2회에 걸쳐 정기 회계감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세입세출의 현금 담당 공무원과

출납원을 분리토록 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일반직(기능직 배제)으로 배치하되 2년마다 순환 근무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타 시·군에서도 유사 공금 횡령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담당군과 무안군 등 2개 군을 특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8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체 인력을 투입해 대행 감사를 하도록 통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금횡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은 개선하고 취약분야는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성남 여수시민들 "시장에 책임 묻겠다"

### 6개 시민단체 성명 발표

여수시청 공무원의 76억원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 여수시민단체가 시장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과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사랑청년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여수시가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자 문책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사퇴 요구 등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결재라인상의 상급자 문책, 인력확충과 민간전문가 활용한 감사역량 강화, 회계담당자의 순환근무제 철저 시행, 인사혁신방안 마련 등을 시에 요구했다.

단체들은 "민선 5기 여수시는 공직

자 청렴실천 서약, 시민감사관제 등을 운영하며 청렴행정을 강조했다나 엄청난 비리가 터지고 말았다. 횡령액을 보전하기 위해 또 시민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횡령금이 전액 회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허탈감을, 시민들에게는 또다시 비리도시의 오명과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시장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도 횡령자금이 유입된 관련자들의 수렁경위, 사용자, 범행가담 여부 등을 철저히 가지고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빛의만평

- 김중두



날마다 놀랄 일 뿐이다

**결혼하러 오세요!**  
복잡하고 시간에 쫓기는 결혼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번 예식

가격은 일반 예식장과 동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 웨딩홀** 예약문의 : 061) 285-0100